

광주 휘발유값 또 2천원 넘었다

20일 연속 상승... ㄹ 당 평균 1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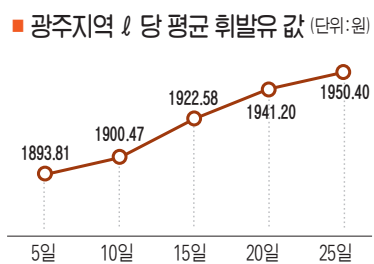
보름새 50원 ↑... 당분간 기름세 지속

올들어 휘발유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광주지역은 20일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값이 다시 2000원을 넘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픈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ㄹ 당 1950.40원, 전남은 1954.64원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5일 ㄹ 당 1893.81원 이후 20일째, 전남은 6일(1914.71원) 이후 19일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동안 광주는 56.59원, 전남은 39.93원 올랐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12월19일 1800원대(1899.78원)로 떨어진 이후 23일 만인 지난 10일(1900.47원) 190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이후 보름새 50원이나 폭등했다. 특히 설 귀성·귀경



을 앞두고 휘발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 상승폭이 더욱 컸다.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의 ㄹ 당 평균 판매 가격이 1968원으로 보름새 34원 올랐다. 북구는 1956원(50원 ↑), 남구(60원 ↑)와 서구(50원 ↑)는 1949원, 광산구는 1896원(50원 ↑) 순이었다. 동구를 제외하고 보름새 50~60원 상승한 것이다.

특히 광주 북구 S주유소는 이날 올들어 처음으로 2000원대를 돌파했다. 10여곳의 주유소들도 1999원을 기록해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20일 연속 오르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했다.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S주유소가 ㄹ 당 2045원에 보통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인다.

전남은 이미 2000원을 훌쩍 넘어 2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이란 제재가 확산돼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강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어져 이번 주말께 광주·전남의 평균 휘

발유값은 15원 오른 1955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 가격은 이보다 큰 23원가량 급등할 것으로 석유공사는 내다봤다.

정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대립 가능성에 따른 국제 기름값 강세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값도 오르고 있다”며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용카드 지난해 540조 사용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40조 원으로 추산됐다. 역대 2번째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이 작년 초부터 신용카드 억제책을 폈는데도 2010년에 비해 무려 50조원가량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등 포함)은 5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사용액 619조1580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확정할 2011년 1~11월까지 카드사용액은 492조 990억원이다. 해마다 12월 카드사용액은 전월보다 매년 1조~5조원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사용액은 최대 50조원으로 추정돼 연간 전체 사용액은 5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여신금융업계는 전망했다

연도별 카드사용액은 카드대란 때

인 2002년 619조15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금융당국의 강력한 억제로 2004년 352조506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1991년 사용액이 13조300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작년 사용액은 무려 4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2011년 초반부터 강력한 카드억제책을 구사했는데도 2010년에 비해 무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월별 사용액은 1월 44조3480억원에서 5월 47조2260억원까지 많아졌다가 6월에는 44조3830억원까지 떨어졌다. 당국이 카드억제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한 작년 8월 이후 월별 사용액은 45조~46조원대로 오히려 많아졌다. 당국의 억제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은행들이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대출 등을 억제하면서 신용카드업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카드대란후 역대 두번째

억제책 불구 50조 늘어

새 얼굴

“사이버 거래 매출 330억 목표”

성창현 농수산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공사에서 갖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로 농업 발전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일 취임한 성창현(54)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광주·전남 지사장은 “올해는 주요 사업계획을 전년 대비 105~130% 수준으로 설정해 관내 농식품 기업에 운영자금 6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aT 지원수출 1억4500만 달러, 가격안정용 비축 농산물 판

매 370억원, 사이버 거래 소 매출 33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진안출신인 성 지사장은 원광대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공사에 입사한 후 품질관리부장, 제조특작팀장, 유통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전전립, 자유당 붕괴로 물거품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⑤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⑥

전후 서울 변전소 화재로 수도권 암흑 천지

호남 전력 공급원 대전 변압기 이전 움직임

▲火電(화전)의 꿈 되살린 희망의 불씨

급박한 전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화순 화력발전소 건립운동은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던 1958년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국제원조기관인 ICA 원조 자금을 의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었는데 아직 건설입지를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접한 광주상공회의소는 즉각 유치 건의 운동에 나섰다. 1958년 6월과 7월 18일 연이어 상공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한편, 건의진정단이 상경해 관계 요원에 화순탄광이 적지임을 설득했다.

당시 전남은 소요전력 2만3000kW 중 인근 칠보발전소에서 1만 2000kW, 보성강발전소에서 3300kW를 공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수력발전의 한계 때문에 여름철 4개월만 발전이 가능하고, 갈수기인 나머지 8개월은 발전이 중단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전남지역은 250km의 원거리에 있는 대전 가오리변전소에서 배전을 받음으로써 송전 손실로 인해 극심한 저전압 현상을 빚

고 있었다.

당시 상공부장관에게 보낸 광주상공회의소의 건의서를 보면 “전력-대전 변전소의 송전전압 66kV가 광주에서의 수전전압은 45kV로 강하되며, 일반가정용 표준전압 100V가 불과 70~80V로, 동력용 표준전압 200V가 140~160V로 급감하함으로써 전기의 사용 동력의 운전을 볼능 또는 마비시키는 유례가 없는 저전압 공급의 기현상을 노정시키고 있다. ~후략”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저전압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반가정에서는 갑자기 전기가 어두워지면서 반복적으로 깜박이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으며,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로서도 광주·전남지역의 이같은 전력 사정이나 화순탄광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인정하고 있는 터여서 이 계획은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의 혼란이 가중되고 3·15부정선거와 4·19민주혁명의 파고가 덮쳐왔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 계획 또한 물거품이되고 말았다.

▲수색변전소 화재 사건

이렇게 화전 건설 운동이 좌절을 거듭하고 있는 터에 광주·전남

지역의 전력 공급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 준 사태가 발생했다.

4·19혁명으로 허정 내각의 과도정부가 제2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7·19 민의원·참의원 총선거를 앞둔 1960년 6월26일 새벽 1시께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소재 조선전업(한국전력 전신) 수색변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변전소는 청평과 화천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서울 시내 일원은 물론 부평을 비롯한 경인지방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도권의 핵심 변전소이다.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낡은 기기로 6·25 때 파손된 것을 수리한 것이다. 화재는 기기 노후로 인한 발생했으며, 6만kW 용량의 주변압기와 레귤레이터(전압조정기)가 전소됐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시내 전역과 부평 등 경인지역이 삽시간에 암흑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력회사들과 대책회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청과 호남지방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전 가오리변전소의 변압기기를 서울 수색변전소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자유당 정권 붕괴의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총선을 맞게 된 민감한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광주·전남도민과 충청지역민들로서는 참으로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위 중 (언론인)

일하는 여성 1000만명 시대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여성 인구가 늘어난데다 경기 호전과 생활고에 따른 부업 수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50대 여성 취업자는 200만명을 돌

파,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아졌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천9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7000명(1.8%) 늘었다.

여성취업자는 1978년(510만명) 500만명을 넘은 지 8년만인 1986년

(617만명) 600만명을 돌파했고 1989년(715만명) 700만명, 1994년(802만명) 8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900만명을 돌파한 2002년(923만명) 이후 9년 만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증가 배경으로는 우선 인구효과가 꼽힌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10년 전인 2001년 1886만명이었으나 2007년 2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작년(2098만명)에는 2100만명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담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강차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www.oknwood.com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편백나무가구 전시장 2층

편백나무 전시장 4층

친환경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키, 중국 향목 루바 일체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 운기석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쏘송각재, 미송각재, 합판, 스티로폼의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협력사

- 우단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물림,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술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가방
- 라피파, KCC 석고보드 총판
- 레오폴라 합성목재 호남총판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히트상품 : 편백입체블럭, 편백보드&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
광남종합목재건축상사(주)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택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청문문의 010-3609-4321